

자본시장 혁신과제 의견수렴  
2018.12.19(수) 09:30

2018.12.19(수) 09:30 이후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--

「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 의견수렴」

- 모 두 발 언 -

---

2018. 12. 19.

금융위부위원장  
김 용 범

※ 본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## 1. 인사말씀

- 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-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 
코넥스 상장기업, 벤처캐피탈, 엔젤투자자들을 대표하여  
참석해 주신 대표님들과 증권사 임원 여러분,  
그리고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-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1.1일 발표한 자본시장  
혁신과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는데 있어,  
기업, 투자자,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 
듣는 자리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- 우리 자본시장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전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일자리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 
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우리나라 뿐 아니라, 선진국도 일자리는 기존 대기업이  
아닌 고성장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창출됩니다.
  - \* 미국 5%의 고성장기업이 신규일자리의 2/3을 창출('10년)
  - 영국 6%의 고성장기업이 신규일자리의 54%를 창출('09년)
  - 한국 9.8%의 고성장기업이 신규일자리의 33.4%를 창출('14년)
- 아울러,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한 유니콘 기업\*들은 교통,  
지급결제, 여행 등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

\* '18.11월기준 290사 美 139개, 中 81개, 韓 4개

□ 그러나,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하고,  
유니콘 대부분이 국내 자본이 아니라 해외자본\*의 대규모  
투자에 의해 성장해왔습니다.

\* 쿠광(Sequoia Capital), 엘로모바일(Formation8), L&P코스메틱(CDIB  
Capitla), 블루홀(Tencent Holdings)

□ 이러한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유니콘 기업의 발굴과  
육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 
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시중의 부동산자금 1,117조원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 
예금, MMF 등 단기성 자금을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,  
우리나라에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
○ 결국,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공급 체계와 전달자가  
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,

○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믿고  
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
자본시장에서 찾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일 것입니다.

□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이러한 정부의 고민을 담아  
마련되었습니다.

○ 대출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,  
시중의 부동산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 
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,

○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## 2. 의견수렴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

□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는 혁신·벤처기업이,

- ①자본시장을 통해 손쉽게 성장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②이에 뛰어들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,
- ③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도록 하며 ④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□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과제는,

- ①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방안, ②코넥스 시장 기능강화 방안과 ③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진입 촉진방안 입니다.

□ 우선,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중소·비상장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뿐만아니라, 최초 투자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척 깁니다.
- 따라서, 이에 대한 투자는 전문성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
- 하지만, 우리나라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엄격한 진입 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2천명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,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자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

□ 다음으로, 코넥스시장 기능강화 방안입니다.

□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초기 벤처투자자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설립하였으나,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주된 평가입니다.

- 이에,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,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
- 코스닥 이전상장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당초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기개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- 현재의 획일적이고 높은 증권회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이에, 미국의 Capital Acquisition Broker제도를 참조하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, 증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.

### 3. 마무리 말씀

- 오늘 의견을 수렴하는 세가지 과제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좋은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에서 출발해서 시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기대, 우려, 대안 등 어떠한 의견이라도 기탄없이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-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혁신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기업, 투자자, 그리고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
  - 향후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